

경남도, 6년간 '융합·고급형 AI인재' 총 6000명 육성한다

경남형 AI 인재양성 사업 본격화
1200억 투입... 年 1000명 양성
지역대학과 신규 공모사업 총력



경상남도청 본관 건물.

경남도가 인공지능(AI) 활용으로 산업 전반을 혁신하고 변화시키는 '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시대' 선도를 위해 대대적인 인재 양성에 나선다.

경남도는 정부의 인재 양성 전략에 발맞춰 도내 주력산업과 AI가 결합한 실무 중심의 고급 인력을 육성하는 '경남형 AI 인재 양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융합·고급형 AI 인재' 양성에 무게를 두고 있으며, 특히 부처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 산업통상부는 현장적용, 교육부는 기초교육 등 분야별 AI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AX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고급 인재'와 '현장형 인재' 양성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제조·방산·우주항공 분야 등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경남형 AI 인재 양성'에 집중한다는 계획 아래, 향후 6년간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년 1000명씩, 총 6000명의 AI 융합·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목표를 세웠다.

교육 수준도 기초 수준의 실무 인력으로부터 글로벌 역량을 갖춘 최고급 연구 인력과 기업 최고경영자(CEO)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와 직군을 아우르는 맞춤형 AI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경남도는 또, 지역 대학과 협력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AI 중

심대학'과 '인공지능 혁신인재양성(AI X대학원) 신규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AI 중심대학' 사업은 대학교육 체계를 AI 중심으로 혁신해 학·석사급 융합·고급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내에서는 국립창원대학교와 인제대학교가 공모를 신청한 후 평가에 대비하고 있다.

선정 시 8년간 총 24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대학의 AI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과 실습 공간 조성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X 대학원 공모에 선정되면 경남의 주력산업인 로봇·자동차·스마트공장·우주항공 등 현장의 현안을 해결할 도메인 전공 기반 AX 인재를 키울 수 있게 되며, 6년간 165억원 규모 지원을 받아 석·박사급 고급 인력을 배출하게 된다.

도는 참여 대학을 발굴하고 지역 주력 산업과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해 올해 AI 대학과 AX 대학원을 각각 1개소 이상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경남도는 산업 현장의 AX 전환과 피지컬 AI 시대 대응을 위해 청년·구직자·재직자를 대상으로 수준별(초·중·고급) AI·SW 역량 강화 교육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ICT 이노베이션 스캐어 사업'은 매년 구직자·재직자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AI, 블록체인 등 신기술 초·중급 교육을 하고, 프로젝트형 교육을 통해 기업 현안을 해결하는 등 지역 특화 산업의 AI 전환과 취·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

시민 아카이브 지원단체 모집

광주시민사회지원센터는 올해 '광주시민사회 아카이브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민사회단체의 공익활동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시민사회 활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축적하고 기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광주시 소재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시민사회단체다. 총 5개 단체 내외로 선정된다.

선정단체에는 단체 창립 이후 활동 자료(문서·사진·영상 등)의 수집·정리를 위한 지원과 함께 사업비 200만원이 지원된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

경북문화관광공공

AI 활용 맞춤형 여행코스 공개

경북문화관광공공사는 급변하는 여행 트렌드를 분석해 관광객에게 최적화된 여행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한 '경북 지역별 맞춤형 여행 코스'를 공개했다.

이번 코스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실시간 소셜 데이터와 한국관광데이터랩 통계 자료를 소셜 분석 전문 AI로 융합 분석해 도출했다. 방대한 방문 후기 속 관광객의 실제 의견을 학습하고 대표·추천 키워드를 선별해 분석의 신뢰도와 정밀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경북=김진근 기자

창원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

지방공기업 예산분석 연구

창원시의회 지방재정연구회가 지난 6일 '창원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 분석 연구' 착수 보고회를 열고 관련 정책 연구에 돌입했다.

이번 연구는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구조 및 재정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고, 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회는 기관별 예산 규모와 사업 구조 분석을 토대로 재정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부산시, 'SMR 제작지원센터' 착공

총사업비 295억... 내년 완공 목표
전자빔 용접 등 핵심 장비 12종 갖춰



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조감도./부산시

부산시는 9일 오전 10시 30분 강서구 미음동 1529-5 일원에서 소형 모듈 원자로(SMR) 보조기기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착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SMR은 발전 용량이 300MW 안팎으로, 대형 원전(1000~1500MW)의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인 소형 원전이다. 공장에서 부품을 제작한 뒤 현장 조립 방식으로 건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김경덕 행정부시장, 김도읍 국회의원, 시의회 부의장, 시·구의원, 한국기계연구원장, 지역 대학 총장, 원자력 관련 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모사업인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에 선정된 3개 과제 가운데 하나다.

함께 선정된 경남·경북보다 착공 시점이 빠르며 부산시는 2021년 사전 기획, 2023년 기획 용역 착수 등 준비 작업을 일찌감치 진행해 왔다. 공모 최종 선정은 2024년 4월이었다.

센터는 총사업비 295억원을 들여 부지 약 4000㎡,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된다. 2027년 완공 후 2028년까지 전자빔 용접 시스템, 레이저 클레딩 시스템 등 핵심 장비 12종이 차례대로 갖춰진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7@

경주시, 4년 만에 인구 순유입 전환

합계출산율도 전국 평균 웃돌아

경주시 인구 흐름에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경주시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순유입이 발생하고 합계출산율도 전국 평균을 웃도는 등 인구 구조에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경주시 총인구는 24만 4055명으로 집계됐다. 출생보다 사망이 많은 자연 감소는 1604명으로 나타났다지만, 전입·전출 등 사회적 요인에 따른 인구는 890명 증가해 전체 인구 감소 폭을 상당 부분 상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1년 이후 이어져 온 인구 유출 흐름이 4년 만에 순유입으로

전환된 것이다.

전입 사유는 주택이 3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가족 26%, 직업 23% 순으로 나타났다. 유입 지역은 울산·대구·부산·포항 등 인근 대도시가 중심을 이룬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변화도 눈에 띄었다. 건천읍은 전년 대비 4095명이 증가해 시 전체 인구 감소 폭을 완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주거 선호도가 높은 황성동 역시 인구가 증가해 경주의 인구 순유입 전환을 이끈 주요 지역으로 분석됐다.

인구 구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지표가 확인됐다. 경주의 합계출산율은 0.94명으로 전년보다 상승했으며, 이는 전국 평균 0.8명과 경북 평균 0.93명을 모두 웃도는 수치다.

/경주(경북)=김진근 기자 jingon@

'포항형 전원주택' 경쟁률 10.6대 1

100호 모집에 1055건 접수

포항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대표 주거복지 정책 '포항형 전원주택' 2026년 예비입주자 모집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관심 속에 마무리됐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현장 접수를 진행한 결과, 100호 모집에 총 1055건이 접수돼 10.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모집에는 포항 지역 청년뿐 아니라 포항으로의 전입을 희망하는 타 지역 거주자 110세대도 신청해 전국적인 관심을 확인했다.

유형별 경쟁률도 높게 나타났다. 청



지난 5~6일 이틀간 진행된 '포항형 전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현장 접수 모습.

년주택은 80호 모집에 1009건이 접수돼 1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신혼부부 주택은 20호 모집에 46건이 신청해 2.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시는 올해 신청 요건을 완화한 점이 신청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포항(경북)=김진근 기자

울주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

재산권 보호, 행정 신뢰 제고 나서

울산 울주군이 장기간 집행되지 않아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을 전수 조사해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한다.

9일 울주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2026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용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등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해제·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추진된다.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존치되는 도시계획시설은 토지 이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산권 보호와 행정 신뢰 제고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용역대상은 울주군내 도시계획시설 중 '울산시 도시계획 조례' 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권한이 위임된 시설이다.

현재 울주군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7개소다. 시설별 도로 96개소(29만8124㎡), 주차장 3개소(7175㎡), 공원 4개소(701㎡), 공공문화체육시설 4개소(14만8636㎡) 등으로 집계됐다.

/울주(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